

清潔 · 清淨 · 清淡의 위생수준 향상시키겠다



● 건강의 보전·증진을 포함해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힘쓰는 일을 의미하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의 '위생' 개념은 보다 광범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위생학회의 창립취지와 연혁에 대한 소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 그렇습니다. 현재 '위생'의 영역은 질병의 예방과 치유의 차원을 넘어 불결하거나 불쾌감 또는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까지도 제거한다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Sanitation(위생)이 아닌 Environmental Health(환경위생, 환경보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요.

학술활동을 통하여 전반적인 위생수준의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학회의 목표입니다. 지난 '85년 12월에 창립총회를 가졌으니, 6년이 됐습니다.

● 회원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현재 학회에 가입한 회원수는 8백여명 가량 되는데, 대개 위생사면허를 갖고 정부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위생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외 이 분야의 대학교수를 비롯,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일반인등 환경위생에 관심있는 분들이 명예회원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한 회장으로서 학회운영은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 저는, 현대인의 생활목표는 누구나 완전한 건강을 확보하며 능률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원동력인 건강은 타고난 체력의 예도 후천적인 청결습관과 태도, 환경, 각자의

■ 편집부

실천으로

심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와 관련되는 청결, 청정, 청담을 실행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 학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 실행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먼저 청결(淸潔)은 위생의 본질이자 질병예방의 기본수단입니다. 현대생활은 대인·대물 접촉 기회가 빈번하므로 유해물질에 폭로되거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최상급의 청결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일전에 일본을 방문했을때 느꼈던 것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의 '청결성' 만큼은 높이 살만하더군요.

청결미는 문화인의 예의와 품위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청정(淸淨)은 우리들의 생존에 불가결한 공기, 물, 식량 그리고 그 공급원인 토양등을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전하거나 오염된 것을 복구 또는 정화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담(淸淡)이란 문자 그대로 결백하며 성실하고 고결한 심성을 말합니다. 외적인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몸과 환경이 청결하고 청정한 상태라면 심성 또한 자연스럽게 청담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꾸준한 자기성찰과 함양이 필요합니다.

● 그러한 3가지 실행운동이 궁극적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군요.

— 예. 단 이러한 실행운동이 도처에서 전개되고 다른 지역 사회에까지 파급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함의'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령 환경정화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할 경우, 과도한 인원을 동원해 비능률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를 남발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그룹에 동참해 경제적, 기술적인 면에서나 시간과 노동력 면에서나 큰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 몫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죠.

주민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전문가의 교육·지도와 함께 가시적인 지원과 성과가 기대되는 계획이 마련될때 비로서 도시 농촌간의 격차없는 전반적인 위생수준의 향상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10월 「지역 환경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셨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저희는 1년에 한차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해 회원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UN관련기구 및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해 당면한 환경위생 문제의 개선방안과 최신의 기술정보를 교류하려고 합니다. ◀

대한위생학회

● 창립년도 : 1985. 12. 21

● 학회임원명단

회 장 조윤승(국립환경연구원)

부회장 박상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허윤행(서울보건전문대)

이명원(국립보건원)

문상열(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윤 해(남양산업(株))

감 사 김지주(서울시교육위원회)

김평욱(전라남도청 보건과)

● 회원수 : 8백명 ('91년 11월 현재)

● 정기활동내역

학회지발행(년 2회), 학술발표회(년 1회)

● 연락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80-17 국립환경연구원 308호
전화/(02)389-8719